

YouVersion 목상자료 1

**\*제목** -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가제)

**\*소개** - 본 목상을 통해 결혼을 앞둔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글은 LA 승리장로교회 James Kim 목사님의 블로그에서 발췌, 편집했습니다.

**\*목상 기간** - 8일

**\*목상자료 제공** - James Kim 목사, LA 승리장로교회 담임

**\*홈페이지 주소** - [www.vpcla.com/xs/home7](http://www.vpcla.com/xs/home7)

## 제 1일차

시편 34편 8절

### 결혼의 준비

결혼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이기에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결혼이란 그 어떤 것에도 비길 수 없는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대한 그러한 큰 관심만큼 결혼에 대한 올바른 준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진정한 기초를 세우려 하기보다는 "사랑"이라는 감정과 현실적인 혼수준비 등과 같은 비본질적인 부분에만 몰입하여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본질적인 빈약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결혼은 고난의 폭풍이 조금만 몰아쳐도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혼이 성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과 우리를 제일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성자 예수님의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부부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 헌신을 바탕으로 결혼 생활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심을 알 때에만 우리의 결혼도 비로소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 제 2일차

요한일서 4장 7절-16절

### 결혼과 관련해서 명심해야 할 4가지 P

- 1.Purpose(목적): 하나님의 영광
- 2.Principle(원리): 성부 하나님의 사랑
- 3.Pattern(패턴): 성자 예수님의 고난
- 4.Power(파워):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

결혼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인 두 남녀의 만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시고자 역사하신 그의 손길과 선하심, 신실하심,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올리는 결혼은 풍랑 있는 바다에 띄우는 돛단배와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혼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하여 드러내야 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원리란 부부가 서로 고난의 짐을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겠다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겠다고 서약하는 결혼,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걸겠다고 다짐하는 결혼,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부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의 뜻을 행하겠다고 결심하는 결혼만이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결혼입니다.

## 제 3일차

에베소서 4장21-24절

### 존재의 중요성

결혼을 생각하는 남녀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존재를 가꾸는 일입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길으로 드러나는 행함이 아닌 그의 존재 (예: 사람됨)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가꾸는 일은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갈등이 별로 없는 결혼 전에는 서로의 존재가 많이 가려져 있지만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수많은 갈등 속에 노출되어 서로의 가려진 모습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존재를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사람됨과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존재는 사랑이신 하나님과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존재로서 예수님의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할 때에야 우리 존재는 비로소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가 결핍된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포장된(?) 행함은 결혼의 기초를 흔드는 무의미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존재의 중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내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찾아 그분을 닮아가는 가운데 그가 나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결혼 생활에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행해야 합니다.

## 제 4일차

에베소서 5장 22-33절

### 올바른 부부관계의 모델

우리고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건강한 부부 및 가정의 모델을 찾아보기가 힘든 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은 저주 때문입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커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가정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 부부들은 더 이상 그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혹은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신부가 되는 "교회"의 모델을 바라보고 좇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New Covenant)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33절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 하나님이 그들 통하여 의도하셨던 아름다운 결혼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보며 추구해야 할 올바른 부부관계의 모델입니다.

## 제 5일차

전도서 4장 12절

### 균형 있는 관계

부부는 서로 의지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 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배우자인 사람을 더 의지한 다면 결코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 다. 배우자를 의지함에 있어서 우리는 균형을 유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갈 정도로 서로를 지나치게 의지한다면 그것은 건강 한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어느 정도 자유스러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자유스러운 공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자유스럽게 해주는 것입니 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지하되 독립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삼각형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부부가 자유스러운 공간을 서로에게 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맨 위 모서리를 하나님, 왼쪽 모서리를 남편, 오른쪽 모서리를 아내라고 한다면, 남편은 아내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존중해 아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스러운 공간을 허락 하고, 아내도 이와 같이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울 수 있도록 자유스러운 공간을 허락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과도한 의지를 절제하며 하나님을 먼저 의지할 수 있도록 서로 에게 공간을 내어줄 때, 부부는 진정한 유대감과 친밀감을 바탕으로 균형 있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제 6일차

창세기 2장 18-24절, 고린도전서 11장 9절

### 결혼의 목적 1

크리스천 젊은이들은 ‘결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합니다. 창세기 2장18-24절과 고린도전서 11장9절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려고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남자와 여자들은 각각 지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는 도움이 필요한 반면 여자는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그저 남녀가 맺어져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짝지어 주시는 이유는 두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결혼의 신적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협력하여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 돕되 남편은 아내의 도움이 필요함을 알아야 하며 아내는 남편을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명백히 깨달아야 합니다.

## 제 7일차

말라기 2장 15절

### 결혼의 목적 2

결혼의 두 번째 목적은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말라기 2장15절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낳아야 합니다.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 그 낳은 자녀를 경건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은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어려운 일입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서로를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아 가는 과정이 결혼생활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을 낳은 후 그 아이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깨달아 가는 것도 결혼생활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편과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의 책임이 얼마나 크고 막중한지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이유나 자아실현이라는 미명 아래 결혼의 두 번째 목적인 “경건한 자녀 얻기”를 도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젊은이들은 이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자 기도하면서 결혼에 임하며 또한 부부 생활을 해야 합니다.



## 제 8일차

고린도전서 7장 2-3절

### 결혼의 목적 3

결혼의 세 번째 목적은 성적 부도덕 행위를 회피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2-3절은 이 세 번째 결혼의 목적에 대하여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문제는 보통 결혼 전이나 결혼 밖에서의 육체적 결합을 말하지만 이것은 그 이전에 마음과 생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 결합으로 말미암은 음행 이전에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음행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부부관계 안에서 만의 성적 만족을 벗어나 자기 소견대로 성적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크리스천 젊은이들은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배우자를 위하여 자신의 순결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이미 결혼한 크리스천 부부들은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서로의 성적 필요성을 알고 이해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성적 만족을 줄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알아 가는데 힘쓰고 아내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아내는 남편의 성적 필요를 인정하고 그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서로에 대한 의무인 것입니다.